

## 예수: 종교적 경계의 파괴자

주제 : 예수는 온전한 참사람이며 , 그리고 그의 완전한 인간성이 하나님의 정의, 즉 존재, 생명 그리고 사랑 의 궁극적 표현임. 이를 실천위해 그는 종교적 벽을 뛰어 넘음.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임.

### 전개: 대부분의 인간이 종교에 부여하였던 의미

종교의 핵심은 보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활동

무력한 인간들의 공포에대한 대처 방식

1. 전능한 신이 나약한 자신들을 보호한 다는 확신
2. 삶에 대한 공포의 회피수단으로 인간 스스로 만든 외계적, 신적 존재에 대해 궁극적의미와 목적 투사
3. 삶에서 피할 수없는 죽음이 궁극적이 아니라는(영생, 구원) 희망

이들은 인간들의 정신적 불안에 대한 피상적인 편안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 종교제도는 여하한 도전도 용납하지않음
- \* 종교제도는 불안정한 세계에서 안정을 찾기위한 대처수단
- \* 종교는 인간의 절망적, 만성적 요구에 응함으로서 그들의 삶을 장악
- \* 종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증오, 거부, 폭력하도록 가르침.

종교(유대교)는 도덕법이 궁극적이며 위반시 처벌을 감수 해야함. 즉 형식적 의로움과 가혹한 심판의식을 낳게함.

### 예수의 태도.

- \* 새로운 인간성에 중요한 가치를 둠.
- \* 자신의 완전한 인간성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에게 소개
- \* 종교적 규율에 메이지않은 온전한 참사람의 모습으로 산 삶
- \* 자신의 삶이 생명 지향적이고 사랑과 향을 품은 것임

이런 예수의 삶, 즉 종교의 경계선을 파괴하는 정신과 삶, 을 여러 복음서를 통해 예를 들

요한복음의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의 태도(사랑),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 (인간의 생명보호 우선) ,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 치유. 종교가 지어준 감옥에서 탈출을 결심한 혈루증 여인의 치유, 문둥병자의 치유, 제자(베드로)의 이방인에 대한 세례,

이러한 행위에서 예수는 종교의 경계선을 확장, 또 그의 벽을 뛰어 넘음. 사랑, 인간성을 종교법보다 우위에 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성의 고양에 있음, 인간의 삶은 하나님 만나는 공간,

- 이런 예수의 행위와 믿음 즉 기존종교를 파괴하는 개혁적인 정신은 기존 종교의 인간 통치에 필요한 법과 제도에 위배되는 것으로 기득권자들의 미움을 삼. 이는 시간과 공간을 망라하는 것으로 현 시대에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배척당하고 있음.
- 예수의 인간됨을 나열하였으나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간됨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결여 됨.
- 저자가 종교라는 단어를 Dogma 나 Creed 로 왜곡된 종교에 사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기:

1. 우리는 종교(왜곡된)가 쳐놓은 경계선 또는 벽이 우리 생각과 행동에 불편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지금 이를 파괴할 것인가?
2. 혹시 우리는 예수의 참 정신을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우리 편의 대로 해석하지는 않는가?